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효과 '톡톡'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의 미세먼지 줄이기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수시는 36 $\mu\text{g}/\text{m}^3$ 로 서울(52 $\mu\text{g}/\text{m}^3$), 경기도(55 $\mu\text{g}/\text{m}^3$) 등에 비해 낮았다. 수도권 70% 수준이다.

초미세먼지도 평균 24 $\mu\text{g}/\text{m}^3$ 로 서울(32 $\mu\text{g}/\text{m}^3$), 경기도(36 $\mu\text{g}/\text{m}^3$)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지형적 요인과 함께 자체적인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시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주의보·경보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즉각 문자메시지, 팩스, 전광판 등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전남 동부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조사 수도권 70% 수준 시, 전기차 등 6개 사업에 21억7120만원 투입

라 이에 대응해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이륜차·천연가스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시비 등 21억712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에 총 7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공공용 자동차도 전기차로 보급해 현재 23대가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승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1352만~23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물량은 다자녀 우선 10대, 일반 승용 38대, 일반 초소형 10대 등 58대다.

시는 전기차와 함께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전기 이륜차 구매자에게 대당 230~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 이륜차는 전기차와 달리 별도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일반 콘센트로 4시간 정도면 완충되는 장점이 있다. 사업비는 전기차 보급이 10억3500만 원, 전기이륜차가 7500만 원이다.

도로 위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도 있다.

시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노후경유차 1대당 최대 770만 원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달여 만에 200여 대의 신청이 몰려 사업이 조기 마감됐다.

올해는 국·도비와 시비 등 5억 6280만 원을 확보해 390대 정도를 계획했으나, 사업 시행 두 달 만에 사업비가 소진되는 등 신청이 쇄도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질소산

화물 저감시설(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사업비는 각각 3억4900만 원, 5000만 원, 9940만 원이 편성됐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경유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물량은 22대다.

지난 2월에는 경유를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지원해 사업량 10대가 조기 마감됐다.

가스 효율을 높이고 질소산화물(NOx)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저녹스 버너도 16기 지원한다.

또 시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14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공기정화기 774대를 지난 1월 보급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단계적으로는 신속한 경보체계를 갖추고 미세먼지 재비산 방지 살수차를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등 배출원인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산업시설용지 재분양

미분양 용지 10필지 대상 5월 2일까지 분양 접수

1차 분양을 완료한 결과 산업시설용지 46%, 지원시설용지 100% 분양이 이뤄졌다.

완도군은 1차 분양에서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10필지 38,272.9㎡에 대해서 4월 2일부터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며,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분양 신청을 접수받는다.

입주가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업 관련 장비제조업 등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 및 5년간 재산세의 75% 감면 혜택과 각종 인허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완도군청 경제산업과(☎061-550-5661)로 문의가능하다.

완도=김광수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독일

湖南新聞 www.hnnews.com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장흥군, 영농철 앞두고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6월 8일까지 30개 마을 대상 · 여성친화형 교육 등

장흥군은 오는 6월 8일까지 용산면 어동마을을 시작으로 총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수리교육은 먼 곳까지 수리하기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중심으로 각 마을회관이나 주차장, 마을 공터 등을 찾아가 진행한다.

수리 대상 기종은 예취기, 분무기,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 위주로 실시한다.

농기계 정비 점검과 수리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벼농사 등 당면 영농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농업인의 불편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무안군, 건강발걸음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성료

무안군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무안종합스포츠장에서 건강발걸음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로 4년째 운영하는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은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총 8시간 과정으로 걷기운동 전·후 스트레칭 지도법, 바른 걷기 방법, 걷기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은 "평소 알지 못했던 나의 걷기 습관을 체크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